뒷심 강해진 호랑이, NC에 위닝시리즈

17일 3차전, 나성범 홈런포·정해영 1점 지키기로 4-3 승리

16일 2차전은 선발 전원 안타·득점 속 14-0 대승 거둬

KIA 타이거즈가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위닝시리즈를 가져왔다.

KIA가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와의 시즌 3차전에서 4-3 승리를 거뒀다.

지난 15일 시즌 첫 대결에서 0-5 영봉패를 당했던 KIA는 16일 선발 전원 안타·득점 속에 14-0의 대승을 거두며 설욕에 성공했다. 위닝시리즈를 놓고 격돌한 17일에는 마무리 정해영이 1점의 승부를 지키면서 KIA가 승자가 됐다.

전날 장단 19안타를 쏟아냈던 타선이 3회 다시 움직였다.

1사에서 박찬호가 좌전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로 2루까지 향했다. 김선빈의 우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KIA가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어 나성범이 '친정팀'을 상대로 이적 후 첫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1회 첫 타석에서 몸에 맞는 볼을 기록했던 나성범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송명기의 136㎞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우측 외야 스탠드 상단을 때리는 커다란 투런포를 만들었다.

승리로 가는 과정은 험난했다.

1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처리한 선발 이의리가 2회 몸에 맞는 볼을 하나 내줬지만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3점의 리드를 안고 시작한 3회 이의리가 흔들렸다.

이의리가 선두타자 서호철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김기환, 손아섭, 박준영에게 3타자 연속 볼넷을 허용하면서 1사 만루 위기에 몰렸다.

이의리는 박건우의 희생플라이로 1점은 내줬지만, 양의지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대량 실점의 위기를 넘겼다.

이의리는 4회와 5회에도 볼넷을 기록했지만 5이닝 1피안타 5볼넷 6탈삼진 1실점을 기록,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3-1에서 세 번째 등판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승리는 챙기지 못했다. 7회 실책이 아쉬웠다.

6회말 1사 1·2루에서 등판해 병살타를 유도했던 전상현이 7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전상현이 선두타자 김기환에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이어 손아섭의 타구가 유격수 박찬호 앞으로 가면서 아웃카운트가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포구 실책이 기록했다.

희생번트로 1사 2·3루. 박건우의 중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의리의 승리가 날아갔지만, KIA는 8회 다시 리드를 잡았다.

2사에서 전날 3안타 행진을 했던 '슈퍼루키' 김도영이 타석에 섰다.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빠른 발로 내야안타를 만들었던 김도영이 이번에는 중견수 키를 넘기는 타구로 2루까지 향했다.

박찬호가 내야안타로 분위기를 살렸고 김선빈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만루가 됐다. 그리고 나성범이 풀카운트 승부 끝에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밀어내기 타점을 기록했다.

계속된 2사 만루 기회에서 최형우가 2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확실한 승기는 잡지 못했지만, 필승조가 승리를 지켰다.

8회 장현식이 출격해 탈삼진을 하나 더한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무리했고, 9회에는 마무리 정해영이 등장했다.

김기환을 3구째 2루 땅볼로 처리한 정해영은 손아섭은 공 하나로 1루 땅볼로 돌려세웠다.

2사에서 박준영의 타구가 유격수 박찬호를 살짝 넘어 중전안타가 됐다. 그리고 이날 NC의 3점을 모두 책임진 박건우가 타석에 섰다. 정해영은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2루수 플라이를 유도하면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우고, 시즌 4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지난해 NC에 4승 12패의 열세를 보였던 KIA는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뒷심 싸움'에서 이기며 위닝시리즈를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류현진 또 난타

오클랜드전 4이닝 5실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류현진은 17일 열린 2022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대량 실점하고 조기 강판당했다.

류현진은 4이닝 동안 안타 6개를 얻어맞고 5실점 했다. 피안타 6개 중 4개(홈런 1개, 2루타 3개)가 장타였다.

사사구는 없었지만, 삼진은 1개를 빼앗아내는데 그쳤다.

류현진은 팀이 2-5로 뒤진 5회초 마운드를 트렌트 손튼에게 넘기고 내려갔다.

다행히 타선이 뒤늦게 폭발해 패전투수 요건은 벗었지만 토론토는 9회초 2점을 내주고 5-7로 패했다.

류현진은 시즌 첫 등판이었던 지난 11일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경기에서 3.1이닝 동안 홈런 1개를 포함해 5안타를 맞고 6실점 했다.

2경기 연속 5점 이상을 내주며 5회를 채우지 못한 류현진은 시즌 평균자책점이 16.20에서 13.50이 됐다.

류현진의 포심패스트볼 구속은 최고 90.2마일(약 145㎞), 평균 88.7마일(약 143㎞)에 그쳤다. 첫 등판이었던 텍사스전 최고 91.5마일(약 147㎞), 평균 90.1마일(약 145㎞)보다 감소했다.

구속이 떨어지고 제구마저 흔들린 류현진이 오클랜드 타선을 세 바퀴째 상대할 때까지 지켜볼 정도로 토론토 벤치의 인내심은 강하지 않았다.

찰리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의 투구 수가 53개에 불과했음에도 5회초를 앞두고 투수 교체를 단행했다. 류현진은 투구 수 53개 중 스트라이크가 33개를 차지했다. 포심패스트볼을 18개로 가장 많이 던졌고, 컷패스트볼(15개), 체인지업(10개), 커브(10개)를 구사했다.

시즌 첫 등판에서 쓴맛을 본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에서도 반등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김효주가 1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에서 우승 후 세리머니 훌라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김효주 우승 '훌라춤'

LPGA 롯데 챔피언십

최혜진 3위·이소미 5위

김효주(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약 11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 통산 5승을 거뒀다.

김효주는 1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의 호아칼레이 컨트리클럽(파72·6303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합계 11언더파 277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2위 시부노 히나코(일본·9언더파 279타)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김효주는 지난해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이후 11개월여 만에 LPGA 투어 대회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려 통산 5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3억 7000만원)다.

김효주는 평균 타수 4위(69.3타),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5위(41점), 상금 6위(48만7431달러)에 올랐다.

김효주는 이날 전반에 버디를 솎아내며 안정적인 리드를 지켰다. 5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홀 가까이 붙여 첫 버디를 잡아내 3타 차 선두를 달렸고, 8번 홀(파4)에선 날카로운 두 번째 샷으로 만든 버디 기회를 놓치지 않고 2위 시부노와의 격차를 4타로 벌렸다.

9번 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여파로 파 퍼트가 까다롭게 남아 첫 보기를 써낸 김효주는 11번 홀(파5) 버디를 적어낸 시부노에게 2타 차로 쫓겼다.

시부노가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하며 격차가 유지되던 17번 홀(파4)에서 김효주는 또 하나의 보기로 1타 차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을 완벽하게 붙이며 버디로 마무리해 우승을 결정 지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신인인 최혜진(23)은 이날 3타를 줄여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김효주, 시부노에 이어 3위에 올라 데뷔 이후 최고 성적을 올렸다.

'국내파' 이소미는 지난해 KLPGA 투어 개막전 롯데렌터카 여자오픈 우승으로 출전 자격을 얻어 나선 이번 대회에서 5위(5언더파 283타)에 오르는 선전을 펼쳤다.

최혜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루키인 안나린(26)은 아타야 티띠꾼(태국) 등과 공동 6위(4언더파 284타)에 자리했다. 전인지(28)는 공동 12위(2언더파 286타), 지난해 우승자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공동 18위(1언더파 287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박상현

박상현, KPGA 투어 개막전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 우승

'승부사' 박상현(39)이 마지막 홀에서 극적인 버디를 성공하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 개막전 정상에 올랐다.

박상현은 17일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 컨트리클럽 올드코스(파71)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7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0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은 이번 시즌 첫 대회다. 박상현은 KPGA 코리안투어 통산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일본투어에서 올린 2승을 포함하면 13승째다.

상금 1억4000만 원을 받은 박상현은 통산 상금을 42억3578만 원으로 늘렸다. KPGA 투어에서 통산 상금 40억 원을 맨 처음 돌파했던 박상현은 통산 상금 1위를 질주했다. /연합뉴스

박지영

박지영, KLPGA 신설 대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우승

박지영(26)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신설 대회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초대 챔피언에 오르며 통산 4번째 우승을 수확했다.

박지영은 17일 경기도 여주 페럼클럽(파72·6628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4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합계 18언더파 270타를 기록한 박지영은 2위 이채은(23·12언더파 276타)을 6타 차로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첫날 코스레코드 타이인 8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던 박지영은 2라운드 1타 차, 3라운드 4타 차 단독 선두를 달렸고, 마지막 날은 격차를 더 벌리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박지영의 KLPGA 투어 통산 4번째 우승이다. /연합뉴스